

머 리 말

지금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정보사회로 들어서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사회로의 변화는 단지 컴퓨터의 보급이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며, 정보를 중심으로 사회구조와 흐름이 재편성되는 사회를 말한다.

청소년 분야 역시 앞으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모으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정보화의 첨단에서 있고 정보사회의 주도세력이 될 청소년을 지도하거나 연구하는 사람의 경우 청소년 정보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그 동안 청소년 분야에서도 정보화를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연구자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청소년단체나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정보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금번에 발간되는 청소년정보자료집 시리즈는 청소년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정보는 나날 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풍성해 진다. 정보화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정보 격차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를 찾아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은 지름길을 알고 있

는 것과 같은 것이다.

1998년은 본격적으로 정보자료집을 발간하는 첫 해가 된다. 청소년 정보도 그 영역에서 매우 다양하고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그 요구도 매우 다를 것이다. 따라서 우선 청소년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길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통신 서비스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지도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앞으로는 정보를 찾는 길 안내만이 아니라 정보 자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더 바란다면 청소년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거나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어떤 내용의 정보가 필요한지는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료집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자료를 통하여 청소년, 청소년지도자와 연구자 그리고 학교 교사나 부모들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998년 12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최 충 옥

읽기에 앞서

정보를 찾아가자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곧 자본이고 무기라고는 하지만 정작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보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간다. 핸드폰이라고 하는 (2~3년전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의 정보통신매체를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저 사용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른바 정보사회는 이처럼 정보가 일상화되는 사회이다. 정보의 일상화는 누군가 정보를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오히려 정보에 대한 무관심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일상화는 또 다른 측면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져들게 한다. 제 때에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은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세대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격차'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정보의 홍수라는 표현은 결국 우리가 아무런 정보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도 갖는다. 아니면 더 나아가 그나마 있는 것도 홍수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에 대한 처리 능력이 없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도 정보가 풍부하다는 의미와 함께 인터넷 기술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망망대해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로 생각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정보화가 컴퓨터화로 인식되면서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기술만이 정보화의 구세주요 목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컴퓨터는 컴맹, 넷맹이라는 낙오자(?)를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손실은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에서 펼쳐지는 '영상화'의 흐름 앞에서 '종이'의 가치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정보를 아무리 많이 만들고 또 열심히 제공하려고 노력해도 정보의 수요자들은 무관심하거나 방황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정보의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누군가 주기만 바라는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

우리는 누구나 정보의 수요자인 동시에 제공자가 된다. 그리고 정보가 반드시 컴퓨터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용기를 가져도 될 것이다. 가상의 전자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실제 책이 꽂혀있는 도서관의 가치도 손상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시대적 변화는 결코 무시될 수는 없다. 문맹을 벗어나 나 했더니 이제는 컴맹으로 다시 넷맹이 놀림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네트워크 세대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는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가야 한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굳이 자료를 찾기 위해 움직일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준비하는 사람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정보 자체를 알려 주기보다는 정보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세상의 많은 정보를 모두 다 한 책에 집어 넣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컴퓨터 통신의 활용이 중심이 될 것이기에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여 자료를 찾는 방법이 소개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라는 원칙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청소년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청소년연구나 청소년활동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다. 하지만 처음 시도하는 입장에서 청소년 정보에 발을 들여 놓는 것 그 이상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영역의 정보 길잡이가 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알찬 자료가 만들어지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되기를 바란다.

목 차

머리말	5
읽기에 앞서 — 정보를 찾아 가자	7
 I. 정보찾기 한걸음	11
 II. 통신 & 미디어를 내 품안에	14
1. 컴퓨터 편견 없애기	14
2. PC통신에서 청소년정보 이용하기	17
3. 인터넷에서 청소년정보 이용하기	23
4. 인터넷에서 유해정보 차단하기	29
5. 나만의 자료 스크랩 방법을 만들자	31
6. 텔레비전이 마보 상자는 아니다	33
7. 온라인 신문은 방송만큼 빠르다	36
8. 청소년 관련 비디오 활용하기	41
9. 전자서점 활용하기	44
10. 전자도서관 활용하기	46

III. 청소년관련 전문정보 찾아 보기	49
1. 정보의 정보를 활용하자	49
2. 연구자료 목록 만들기	53
3. 법률/정책정보 서비스를 활용하기	55
4. 외국의 청소년 관련 자료	56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정보 활용하기	59
IV. 청소년관련 기관 찾아가기(주소록)	60
1. 정부기관 찾아가기	60
2. 청소년종합상담실 찾아가기	62
3.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찾아가기	63
4. 청소년단체·시설 찾아가기	64
5. 청소년학과 찾아가기	69
6. 청소년개발원 정보 이용하기	70

I. 정보찾기 한걸음

1) 널려 있으면 휴지, 그러나 잘 모으면 보물이다.

우리 속담에 “XX도 약에 쓸려면 없다”는 말이 있다. 오늘 필요없다고 내일도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신문기사, 전화번호 하나라도 언젠가는 쓸 일이 있다. 아무리 비싼 책이라도 누렇게 변색되도록 꽂혀 있으면 휴지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라도 적고 모아두면 정보가 된다. 하지만 무조건 쌓아놓는다고 보물이 되지는 않는다. 모으는 방법도 기술이다.

2) 정보, 구하면 구할 수 있다.

“정보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서”라는 핑계로 첨단 정보사회에서 버틸 수는 없다. 정보는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궁금한 것을 그리고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궁금하고 필요한 것이다. 알아볼 생각도 없이 그저 정보가 없다고 하면 그 만큼 뒤쳐질 수밖에 없다.

3) 모든 길은 로마로만 통하지 않는다.

정보왕국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지금은 Pax Romana의 시대가 아니다. 오늘의 첨단기술도 내일은 후진기술이 된다. 그러나 첨단매체라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영상시대라고 모든 자료를 화면에 담아야 좋은 것은 아니다. 영상자료를 볼 수 있는 컴퓨터는 그 내용을 종이에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을 때 가치가 살아난다. 사용할 수 있는 매체는 모두 사용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

4) 정보에는 왕도도 지름길도 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을지 모르지만 정보를 찾아가는 길에는 왕도도 있고 지름길도 있다. 사람마다 지름길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 전자수첩보다는 바로 꺼내

볼 수 있는 메모용 수첩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지름길의 속도는 다르다. 더욱 빠른 길을 찾는다면 인터넷 바다에 빠져 보라. 왕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 좋은 정보는 찾는 사람에게 보인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비싼 컴퓨터도 쓰지 못하면 장식품에 불과하다. 아무 자료나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보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용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도라지보다는 산삼을 찾아 정보의 숲을 헤매 보자.

6) 정보는 찾다가 길을 잃어 헤맬수록 늘어난다.

정보 도로에 들어서서 길을 잃을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길을 잘못 찾아 갔다면 시간이 더 걸릴 뿐이다. 하지만 잘못 들어갔던 길도 잘 기억해 두자. 다시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도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지금은 solo의 시대가 아니라 hyper-link의 시대이다.

7) 누구나 정보 요리사가 될 수 있다.

정보는 특별한 사람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정보가 된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를 기억하자. 받으려고만 하면 줄어들지만 나도 열심히 주면 더 좋은 것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정보를 잘 다듬어 가공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하지만 요리사도 자격증이 있고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등 분야가 있다. 가장 요리를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정보 요리사가 되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8) 컴맹임을 두려워하지도 자랑도 하지 말라.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모르다 보면 용감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모르면 무조건 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나는 컴맹인

데”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 한다. 하지만 지금은 컴맹의 시대도 아니다. 이제는 ‘네티맹’, 즉 컴퓨터 통신 문맹의 시대이다. 언제나 당당하게 “나는 컴맹이야” 아니면 “나는 네티맹이야”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앞으로는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컴퓨터 또는 정보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아는 척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모르고도 아는 척하면 진짜 전문가가 가르쳐 줄 것을 넘어가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아는 사람들에겐 웃음거리가 된다.

9) 마당발을 가진 친구를 두어라.

사람마다 성격이야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여기 저기 사람도 많이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이 있다. 이른바 ‘마당발’을 가진 사람이다. 혹시 내가 부족하거든 주위에서 ‘마당발’을 찾아 친구가 되자.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사람만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경우는 없다.

10) 컴퓨터보다는 사람 머리가 더 좋다.

컴퓨터는 사람이 만들었다.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컴퓨터의 기능은 사람하기 나름이다. 컴퓨터 바둑을 두어 보자. 정말로 컴퓨터와 두는 것인가? 아니다. 이미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사람과 두는 것이다. 사람나고 기계가 만들어졌지 기계나고 사람난 것은 아니다. 컴퓨터의 주인은 사람이다. 좋은 컴퓨터와 좋은 프로그램은 만들고 쓰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 컴퓨터가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컴퓨터와 답을 쌓고 살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 선택이 필요하다.

II. 통신 & 미디어를 내 품안에

1. 컴퓨터 편견 없애기

1) 워드 프로세서보다 통신이 더 쉬울 수 있다.

컴퓨터 앞에서 처음 앉아 자기 이름을 화면에 찍고 프린터로 출력할 때의 감격을 잊기는 어렵다. 손으로 써 놓은 글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타이핑하다가 처음으로 자기 혼자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타이핑할 때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가? 그리고는 그 이후로 컴퓨터 세대에 들어가 남들이 컴퓨터 이야기를 할 때 한 몫 킁켜고 하게 된다. 자동차 운전과 별 다를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컴퓨터가 모니터 화면상에서 수정할 수 있는 타자기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컴퓨터 보급대수가 1,000만 대를 넘어섰는데 PC통신 가입인구는 300만 명 정도이고 그것도 20대 전후로 몰려 있다.

이왕 컴퓨터에 대해서 한 마디 할 생각이라면 타자보다는 인터넷이 어찌구 하는 말이 훨씬 대견스러울 것이다. 통신을 쓰기 위해서는 모뎀과 같은 기계도 필요하고 '이야기'나 '데이터맨'과 같은 프로그램도 필요하며 연결 방법도 알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딘지 모르게 처음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단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통신에 접속해 보면 달라질 것이다. 알고 보면 번호 선택 또는 마우스의 클릭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보다 재미도 더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 컴퓨터는 자동차보다 더 안전하다.

컴퓨터를 처음 접한 후 가장 두려운 때는 갑자기 화면이 꺼지고 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이다. 그래서 어디 터지더라도 할까봐 A/S를 부른다. 그런데 본체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편이 빠져 있는 것을 볼 때의 황당함은 분한 마음(?) 까지도

생기게 한다.

그런데도 참 재미있는 현상은 고장이라도 날까봐 컴퓨터를 마음대로 켜지도 끄지도 못하던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딴 지 1주일도 안되어 차를 몰고 길거리로 나온다는 것이다. 위협하기로는 자동차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도 두려워하기는 컴퓨터를 더 두려워하기도 한다. 컴퓨터와 친해지려면 컴퓨터를 다 뜯어 볼 각오로 덤벼드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새 차보다는 컴퓨터가 더 싸지 않은가?(물론 자동차보다 비싼 컴퓨터도 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다른 컴퓨터와 부딪힐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3) 통신의 바다, 빠질수록 세상은 넓어진다.

인터넷에 대한 별명 중의 하나가 ‘정보의 바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바다라는 말이 정보가 많다는 말도 되지만 반대로 ‘표류’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 찾고 바다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웹 사이트 검색을 하다가 엉뚱한 곳에 들어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하다 못해 화면 구성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라도 얻을 수가 있다. 수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 속에 빠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4) 모든 기능을 순서대로 알 필요는 없다.

컴퓨터를 처음 앞에 놓았을 때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대할 때 기능을 순서대로 하나 하나 배워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다 보면 도대체 진도가 나가지 않고 1년이 지나도록 초보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이 자동차 정비사는 아니다. 어떤 사람도 자동차의 모든 기능을 배운 후에 운전을 시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자. 수학 문제를 풀 때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로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반대도 있지 않겠는가? 어려운 문제는 대개 몇 가지의 원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쉽다는 의미는 단순한 원리의 적

용만으로도 해결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혼자 해결해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밝아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컴퓨터라고 예외는 아니다. 꼭 초급에서 중급으로 다시 고급 기능으로 갈 필요는 없다. 필요한 기능부터 무조건 실행해 보라.

5) 이용자 매뉴얼보다 키보드가 더 좋은 지침서다.

비싼 값으로 컴퓨터를 사 두었지만 그 가격에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까지도 손때가 안 끼는 사람도 있다. 매뉴얼로 나온 책에만 여기 저기에 펜 자국이 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책은 책이다. 어떤 책도 내 마음에 딱 들어맞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책 저 책, 매뉴얼만 사든지 아니면 책이 잘못되었다는 타령만 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용자 매뉴얼은 단지 지침서일 뿐이다.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일종의 사전과 같은 것이다. 사전의 첫 페이지부터 외어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드문 경우이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찾게 된다. 컴퓨터도 사용하다가 모르면 책에서 관련된 부분만 찾으면 된다. 차라리 키보드부터 두들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래도 컴퓨터가 터지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다시 깔면 그만이다.

6) 인터넷 전용선이 전화요금을 줄여줄 수 있다.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사용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전화요금이다. 물론 앞으로는 곧 현재의 전화선만이 아니고 케이블망이나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을 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의 입장에서 많은 돈을 전화요금에 다 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단체나 시설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통신을 많이 쓰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낮은 속도라도 인터넷 전용선을 쓰게 되면 전화요금이 낮아진다. 전화요금은 쓰는 만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전용선은 정액제이다. 그리고 전화선을 쓰려면 컴퓨터마다 모뎀에 전화선을 하나씩 연결하지만 인터넷

전용선은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전용선은 PC통신도 함께 쓸 수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비용을 줄여 줄 것이다.

2. PC통신에서 청소년정보 이용하기

1) PC통신, 일단 가입부터 하자

(1) 통신망에 접속 준비 하기

요즘에는 컴퓨터를 구입할 때 대개 모뎀이 내장형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내장형이 없을 경우에는 외장형 모뎀을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모뎀의 속도는 가능한 한 높을수록 전화요금이 줄어든다.

그리고 통신사와 접속에 필요한 통신프로그램(에뮬레이터라고 불린다)을 설치해야 한다. 범용으로 쓰이는 프로그램으로는 '이야기'와 '새롭 데이터맨 프로'가 있다. 특히 후자는 인터넷 전용선을 사용할 경우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PC통신에 접속하는 기능이 뛰어나고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각 통신사마다 제공하는 전용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면 된다. 요즘에는 윈도우즈용으로 사용에 편리한 프로그램이 공급되고 있다. 천리안의 매직콜, 하이텔의 하이텔 99, 나우누리의 나우로, 유니텔의 유니원과 같은 경우이다. 하지만 전화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 ISDN을 연결할 경우

ISDN은 '종합정보서비스망'을 말하며 광케이블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이전에는 꿈의 통신망으로 불렸다. 최대 128 kbps의 속도로 서비스되고 있다. 설치를 위해서는 전화선 접속시 NT카드, S카드, TA 등과 같은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방식에 따라 전화, 팩스와 함께 4대의 pc를 함께 연결할 수도 있다. 요금은 분당으로 지급한다(현재 3분당 40원).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http://www.kt.co.kr>로 접속하여 자료를 찾아 보면 된다.

다. 그렇지 않으면 근처의 전화국이나 서비스 대행회사로 연락을 하면 된다(한국통신 각국번-0200).

• 케이블망을 이용하여 연결할 경우

케이블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케이블로 방송국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케이블은 단지 방송 프로그램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케이블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보급될 것이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기존의 케이블 TV망에 PC(LAN카드 장착)를 케이블 모뎀을 이용하여 연결하며, 초고속(최대 30Mbps까지)으로 고속인터넷, PC통신접속, 주문형 비디오(VOD)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 등에서만 가능하지만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상용화될 것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역의 가까운 유선방송업체나 두루넷에 전화하여 설치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두루넷 02-3488-8228, 한국케이블 02-3663-7890).

(2) 통신서비스의 종류와 가입방법

PC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다면 우선 통신사에 가입을 해야 한다. 흔히 상용 PC통신망이라 하여 4대 통신망으로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가 있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PC통신 서비스로는 넷츠고, 채널아이, 신비로 등이 있다.

PC통신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전화를 하는 방법과 통신프로그램을 통해 'guest', '손님'으로 접속하여 통신상에서 가입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실제로 통신초보자가 모든 일을 혼자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확실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도와주더라도 잘 관찰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서비스만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통신사나 기관의 통신망과 연결할 수도 있다. 한국통신에서 운영하는 01410이나 데이콤에서 운영하는 01420으로 모뎀과 통신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하면 아주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01410을 통해서만 한국PC통신서비

〈표 1〉 PC통신서비스 회사와 가입을 위한 연락처

통신망	운영회사	연락처	비 고
천리안	데이콤	02- 709-3700	고객센터번호
하이텔	한국PC통신	02-3289-2280	고객상담번호
나우누리	나우콤	02- 590-3800	
유니텔	삼성 SDS	02- 522-0114	도움방번호
넷츠고	SK 텔레콤	02-3479-0700	*인터넷 기반
채널 아이	LG 인터넷	02- 369-9900	*인터넷 기반
신비로	현대정보기술	02- 720-1140	*인터넷 기반

스에서 제공하는 하이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하이텔 정보세계’ 및 ‘하이텔 인포샵’이라고 하는 정보서비스를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기관이난 통신사에서 통신망을 연결하여 접속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하이텔 인포샵은 전화요금에 이용요금이 부과되므로 별도의 가입이 필요치 않은 경우가 많아 가입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이다.

2) 청소년 정보를 찾아 보자.

(1) 청소년 전문 메뉴를 찾아 가는 방법

대부분의 PC통신마다 청소년 전문 정보서비스를 모아 놓은 코너가 있다. 우선 이 메뉴에 모여 있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여기 저기에서 정보를 찾는 시간을 줄여 줄 것이다. 아쉬운 것은 첫 화면에 ‘청소년’ 코너가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하위메뉴 안에 섞여 있다.

내용상으로는 상담이나 자원봉사, 폭력예방과 같이 특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와 다양한 종합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종합정보서비스 코너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연구자,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와 함께 청소년들의 동호회와 같은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표 2〉에서 〈표 5〉의 메뉴 소개는 청소년, 상담 영역의 정보중 청소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메뉴만 선정한 것이다.

〈표 2〉 천리안의 청소년 전문 정보 메뉴

청소년 메뉴	정보서비스명	제공기관	INDEX
첫화면 →생활/여성 →성/청소년 /상담	청소년정보마을	한국청소년개발원	youth
	청소년폭력예방	청소년폭력예방재단	prevent
	큰꿈이이야기	거목	gv
	청소년대화의광장	청소년대화의광장	kyci
	구성애의 아우성	내일 여성센터	ausung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중앙본부	iss
	청소년상담센터	서울시교육청	sirent
	ymca청소년상담	대한YMCA연맹	ycouns
	경기도청소년상담	경기 청소년상담실	kkcoun
	청소년상담실	대전 청소년상담실	conyouth
	부산 청소년상담실	부산 청소년상담실	pscoun
	대구 청소년상담실	대구 청소년상담실	dgcoun
	인천 청소년상담실	인천 청소년상담실	iccoun
	경남 청소년상담실	경남 청소년상담실	kncoun
	전남 청소년상담실	전남 청소년상담실	jncouns
	충남 청소년상담실	충남 청소년상담실	cncoun
	충북 청소년상담실	충북 청소년상담실	cbcoun
	강원 청소년상담실	강원 청소년상담실	gwc

〈표 3〉 하이텔의 청소년 전문 정보 메뉴

청소년 메뉴	정보서비스명	제공기관	INDEX
첫화면 →생활/가정 →청소년/ 상담	청소년정보마을	한국청소년개발원	ynt
	청소년세계	아비소통신	youth
	구성애의 아우성	내일 여성센터	ausung
	우주정보소년단	한국우주정보소년단	yaknet
	청소년대화의광장	청소년대화의광장	kyci
	서울ywca	서울 ywca	sywca
	강남청소년회관상담	강남청소년회관	sangdam
	경남청소년상담실	경남청소년상담실	kncoun

* 사회단체 등 다른 영역에 [청소년과 함께(YMCA/ y1318)], 서울시 [청소년정보마당(서울시청소년사업단/ seoul)] 등이 있음

〈표 4〉 유니텔의 청소년 전문 정보 메뉴

청소년 메뉴	정보서비스명	제공기관	INDEX
첫화면 →교육/사회 →상담/봉사 /청소년	청소년정보마을	한국청소년개발원	youthnet
	청소년정보마당	서울시청소년사업관	scoulyn
	청소년세계	아비소통신	youth
	청소년폭력예방	청소년폭력예방재단	prevent
	청소년자원봉사	한국청소년개발원	bongsa
	등대청소년상담실	등대컴퓨터통신	loi
	강남청소년회관상담	강남청소년회관	sangdam

〈표 5〉 나우누리의 청소년 전문 정보 메뉴(상담)

청소년 메뉴	정보서비스명	제공기관	INDEX
첫화면	구성애의 아우성	내일여성센터	ausung
→문화/생활	등대-청소년상담센터	등대 컴퓨터통신	loi
→종교/상담	둘리마을 고민상담실	뮤직 핫라인	dolco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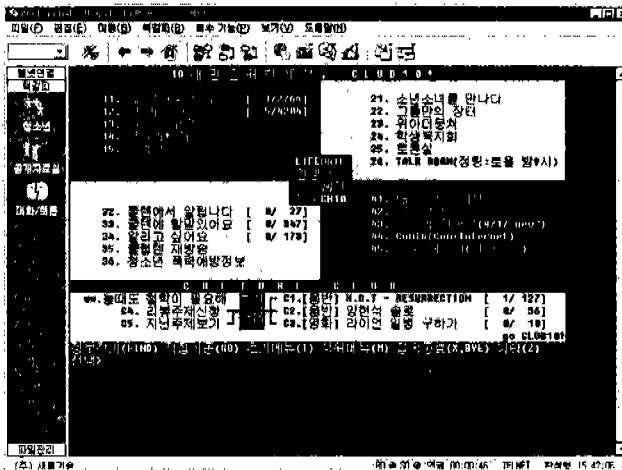
(2) 청소년 관련 메뉴를 찾는 방법

청소년 정보를 찾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관련될 만한 메뉴를 뒤지는 일이다. 물론 신문기사나 연구자료와 같은 일반적인 코너도 있지만 좀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코너도 있다. 통신망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메뉴를 탐방해볼 수 있다.

기획서비스 코너

통신망마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용서비스 코너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천리안의 경우를 보면 1998년도에 개설된 10대 놀이터로 ‘클럽텐’(go club10)이 있다. 기획서비스 코너들은 초기에는 첫화면에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획코너나 동호회 코너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인덱스명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이 코너들은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데 아주 유용하다. 천리안의 클럽텐의 메뉴 화면을 보면 도

〈그림 1〉 천리안의 10대 놀이터 클럽텐 메뉴 화면



움이 될 것이다.

동 호 회

동호회는 비슷한 취미와 기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청소년들 중에서도 10대 동호회와 같이 청소년 중심으로 구성된 동호회가 있다. 동호회는 회원 가입을 기본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둘러볼 수 있다. 첫화면에서 동호회 메뉴를 선택하면 다시 분류가 나오게 된다. 여기에서 연령대별, 세대별, 학교별 메뉴를 선택하면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동호회를 구경할 수 있다.

온라인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통신망에 온라인학교를 개설한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첫화면에서 온라인학교를 선택한 뒤 지역이나 학교급별로 선택하면 된다. 내용은 대체로 게시판과 학습자료, 기타 정보로 되어 있다.

전문정보 코너

학습, 진학과 같이 청소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청소년 연구, 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메뉴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통신서비스마다 전체 메뉴를 탐색해봐야 하지만 대체로 문화, 생활, 직업(취업), 교육 등과 같은 메뉴에 집중되어 있다.

3. 인터넷에서 청소년정보 이용하기

1)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기

인터넷에 접속하는 준비과정은 PC통신 연결 준비와 같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인터넷 웹 브라우저, 즉 넷스케이프나 익스플로러를 설치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환경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접속 프로그램은 윈속과 같은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요즘에는 별도로 실행할 필요가 없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전용 접속 프로그램만으로도 가능하다. 인터넷 전문 서비스 업체에 가입하면 start-kit라 하여 접속용 S/W를 담은 CD를 준다.

〈표 6〉 비영리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

통신망	운영기관	가입문의
정부공공기관인터넷 KOSINet http://kosinet.ne.kr	한국전산원	tel 0331-260-2689 fax 0331-262-2753
초고속국가망인터넷 PUBNET http://www.pubnet.ne.kr	한국전산원 한국통신(운영)	tel 02-398-9184 fax 02-733-6038
교육전산망 KREN http://www.kren.nm.kr	서울대학교	tel 02-880-5364 fax 02-887-0130
연구전산망 KREONet http://www.krconet.re.kr	시스템공학연구소	tel 042-828-5039 fax 042-828-5170

그리고 PC통신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PC통신업체의 윈도우 전용 에뮬레이터(앞에서 말한 천리안 매직콜, 유니텔의 유니원과 같은 통신망 접속 프로그램을 말함)에서 브라우저만 설치하면 인터넷도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과 PC통신 사이의 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역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인터넷서비스 업체, 즉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바로 전화를 하자.

〈표 7〉 상용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

통신망	운영기관	가입문의
KORNet http://www.kornet21.net	한국통신	tel 신청자국번+0000 fax 02-766-5903
BORANet http://www.bora.net	데이콤	tel 02-220-7007
Inet http://www.iworld.net	아이네트	tel 02-555-8114 fax 02-358-6944
NowNet http://biz.nownuri.net	나우콤	tel 02-590-3854 fax 02-590-3868
SHINBIRO http://www.shinbiro.com	현대정보기술	tel 02-720-1140 fax 02-723-1140
INTERPIA http://www.interpia.net	두산정보통신	tel 02-3445-1119 fax 02-3443-8811
UNITEL http://www.unitel.co.kr	삼성SDS	tel 02-3415-6114 fax 02-3415-6500
HANQ http://www.HanQ.net	한솔텔레콤	tel 02-3488-1856 fax 02-3488-1949
KOLNET http://www.hitel.net	한국PC통신	tel 02-3289-2200 fax 02-3289-2280
ELIMNet http://www.elim.net	제이씨현시스템	tel 02-3149-4800 fax 02-365-4046
Uriel http://www.uriel.net	넥스텔	tel 02-536-9900 fax 02-536-9911
NETSGO http://www.netsgo.com	SK텔레콤	tel 02-3479-0700 fax 02-3481-4554
CHANNEL-I http://www.channeli.net	LG인터넷	tel 02-369-9900 fax 02-369-9999

통신망	운영기관	가입문의
AUNET http://www.aunet.ne.kr	에유넷코리아	tel 02-834-3413 fax 02-834-1455
KTnet http://www.ktnet.co.kr	한국무역정보통신	tel 02-551-8690 fax 02-551-8682
KOTIS-NET http://www.kotis.net	한국무역협회	tel 02-551-5280 fax 02-551-5310
NetValley http://www.netvalley.net	안텍스산업	tel 02-563-7011 fax 02-563-7016
EYES http://www.eyes.co.kr	부일이동통신	tel 051-850-5000 fax 051-850-5098
sdsnet http://www.sds.co.kr	삼정데이터서비스	tel 02-501-2800 fax 02-501-3303
THRUNET http://www.thrunet.com	두루넷	tel 02-3488-8282 fax 02-3488-8707
HANARO http://www.hanarotel.net	하나로통신	tel 042-257-9111 fax 042-257-9115

2) 웹에서 청소년정보 검색하기

인터넷서비스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서비스는 웹이다. 정보를 찾는다고 할 때 지금 상태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적어도 50% 이상은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전자메일로 질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건만 어느 정도되면 누구나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쩌면 앞으로 정보의 왕도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인터넷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컴퓨터가 서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컴퓨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다. 하루에도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 사이트가 생기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무리 여기 저기에다 적어 놓는다고 하여도 그리고 넷스케이프 화면에서 자주 가는 곳으로 표시(북마크라고 함) 한다고 하여도 얼마나 많이 하겠는가?

하지만 고맙게도 그 많고 많은 그리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웹 사이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등대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른 바 웹 검색 엔진이라는 것이다. 역시 가장 유명한 것은 야후(<http://www.yahoo.com>)이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검색엔진이 여러 군데서 만들어져 보급되고 있다.

〈표 8〉에서 예시된 검색엔진들은 저마다 특성이 있지만 대체로 두 가지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는 검색어로 찾는 방법이다. 어떠한 검색엔진이든지 검색 또는 search라는 단어와 함께 하얀 셀이 있고 여기에서 원하는 단어를 넣는 방식이다. 웹문서

〈표 8〉 웹 검색 엔진

구 분	검색엔진	URL
한글 검색	심마니	http://simmany.hnc.net (한글, 영어 동시 검색 가능)
	야후코리아	http://www.yahoo.co.kr
	정보탐정	http://aistar.kotel.co.kr
	네이버	http://www.naver.co.kr
	까치네	http://www.biho.taegu.ac.kr/ka
	애니서치	http://www.anysearch.com
	iBot	http://ibot.iworld.net
	마당발	http://madangbal.samsung.co.kr
	와카노	http://www.keimyung.ac.kr/wakano
	유니파인더	http://www.unifinder.com
영문 검색	야후	http://www.yahoo.com
	익사이트	http://www.excite.com
	인포시크	http://www.infoscek2.com
	알타비스타	http://www.altavista.digital.com (영어, 한글 동시검색 가능)
	핫봇	http://www.horbot.com
	라이코스	http://www.lycos.com
	서치롬	http://www.search.com
	오픈텍스트	http://index.opentext.net

의 내용까지도 검색하여 원하는 단어가 들어간 문서는 다 보여 준다. 따라서 청소년, youth라고만 입력하면 청소년과 관련된 사이트는 다 찾을 수가 있다.

둘째는 분류로 찾는 방법이다. 무조건 이 내용 저 내용 모아 놓은 사이트는 많지 않을 것이고 중심이 되는 주제가 있을 것이다. PC통신서비스의 화면과 같이 원하는 분야를 클릭하여 찾고자 하는 정보를 메뉴별로 찾아 가는 방식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인터넷 정보는 1998년도에 발간된 《인터넷에서 청소년정보 찾기》(한국청소년개발원; 연락처 자료실 02-578-7924)와 유네스코에서 발간하는 'Internet Atlas On Youth'(유네스코청년원; 연락처 0336-638-9055)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또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YOUTHNET (<http://www.youthnet.re.kr>)에 접속하여 첫 화면에서 청소년관련 사이트를 클릭하면 국내와 국외의 청소년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그림 2〉는 한글 검색엔진 네이버를 사용하여 검색어로 '청소년'을 입력한 사례이다.

검색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청소년'이라고 입력하면 〈그림 3〉과 같이 목록이 화면에 뜨게 된다.

〈그림 2〉 네이버를 이용한 검색 예시 화면



〈그림 3〉 네이버를 이용한 검색 결과 화면



3) 인터넷 전용선 설치(방법과 요금)

인터넷 사용이 점차로 늘어 나고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전용선 설치 확대되고 있다. 전용선은 일종의 hot line이다. 즉 항상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것이다. 전용선이 설치되면 다른 조작이 필요없이 인터넷 브라우저만 실행시키면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는 요금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56kbps 급이 가장 낮은 속도로 되어 있지만(그 이하도 있음) 현재 40%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대략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월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 보다는 기관에서 많은 사람이 통신을 사용한다든지 기관 운영 업무 전산화로 필요한 경우에 도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는 방법은 우선 접속할 서비스 업체를 정하는 것이다(〈표 9〉 참조). 그리고 원하는 비용과 속도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장비를 준비하는 것이다. 장비는 라우터, DSU나 CSU(속도에 따라 결정), PC별 랜카드와 케이블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작업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대행하므로

〈표 9〉 인터넷 전용선 속도와 요금(월정액/데이콤 98.11현재)

속도	요금	속도	요금
56Kbps	796,000	512Kbps	2,023,000
128Kbps	1,080,000	T1 (1,544)	3,636,000
256Kbps	1,462,000	E1 (2,048)	4,698,000

* 중소기업, 교육 기관, 비영리기관 등은 40% 할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별로 요금 다소 차이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무조건 말기는 것보다는 함께 배우면서 설치하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터넷에서 유해정보 차단하기

청소년들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사용할 때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너무 빠져버려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과 음란한 그림이나 자료를 보는 것이다. 요즘에는 초등학생까지도 음란한 통신 코너를 운영하고 또 통신을 통해 팔기도 하니 문제는 문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대를 역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음란물에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를 먹다 보면 시들해 지기도 하고 스스로의 통제력도 생긴다. 통신은 쓰기 나름이지 통신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막고 좋은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음란물과 같은 유해 자료는 법적으로도 처벌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다음의 표를 보면 통신매체를 통한 유해물 배포 등과 관련된 벌칙을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현실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인터넷에서 유해한 정보는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보급되고 있다.

〈표 10〉 유해정보에 대한 제재 법령

법령	규제대상	근거조항	벌칙내용
형법	음란물의 배포와 제조 등	제 243조 제 244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미성년자보호법	음란물의 배포와 제조 등	제 2조의2 제 6조의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 (통신업자대상)	제 53조 제 72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전기통신기본법	허위의 통신	제 47조 -공익침해 목적 -자기, 타인 이익, 타인 손해 목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음란물의 배포 등	제 48조의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물의 배포	제 14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유해물 관련 전반적인 사항	제 17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제 50조	2천만원이하의 벌금
		제 14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제 51조	1천만원이하의 벌금

검색 차단 방식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주소에 sex, porno, xxx와 같은 단어가 들어간 사이트를 자동적으로 차단시키는 방식이다.

- 서프와치(<http://www.surfwatch.com>)
- 넷내니(<http://www.netnanny.com>)

둘째, 색스나 폭력에 관한 범주를 설정하여 접근을 막고 검색에 의한 여과방식과 함께 등급에 의한 차단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마이크로소프트사 개발).

- 사이버패트롤(<http://www.microsoft.com>)

셋째, 사이버패트롤과 유사하나 접속한 사이트를 기록하게 하여 사후관리도 가능한 방식이다.

- 사이버시티(<http://www.solidak.com>)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유해정보 차단 도구로는 한국전산원에서 개발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NCA패트롤이 있다. 현재 NCApatrol 1.5와 NCApatrol Proxy 1.0이 개발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구하여 설치하기 위해서는 <http://security.nca.or.kr>로 접속하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02-3415-0113)로 연락하여 CD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5. 나만의 자료 스크랩 방법을 만들자

사실상 요즘에는 신문 기사를 오리고 복사해 두는 수고가 별로 필요가 없어 지긴 하였다. 기사가 바로 바로 통신에 올라 오고 오래된 기사도 한 번의 검색으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문기사 내용이 항상 새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통신에서 신문 기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모든 신문을 집에서 전화로 검색하려면 전화요금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신문사에서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 고마울 뿐이다. 하지만 잡지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유료로 분당 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문이나 잡지 또는 다른 책에서 본 자료를 스크랩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정보수집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개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 굳이 자료를 오리고 붙이고 하는 일이 내키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자료 스크랩은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1) 나름대로의 분류 방식을 정하라.

여기에서 어려운 점은 모든 자료가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분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일자별 순서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분류 방식을 정하는 데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도서관에 가보면 십진분류법을 주로 쓰고 있다. 대략의 방식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과 관련된 자료의 분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백서의 분류를 참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개발원에서 분류하는 방식을 참조할 수 있다. 참고자료로는 청소년개발원에서 발간한 《청소년정보자료 분류 검색 체계에 관한 연구》(1998) 등이 있다.

2) 자료의 목록을 만들어 보관하라

다음으로 분류한 자료마다 목록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더 가능하다면 목록만이라도 입력해 놓으면 좋을 것이다. 잡지기사 목록이라면 잡지명, 호수, 연도, 자료 보관 파일 번호를 함께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워드 프로세서 안에서 제공하는 단어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언제라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관하기로 마음 먹은 자료는 우선 복사를 하고 그림이 있는 경우는 원본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통신의 경우 신문기사와 함께 그림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인쇄상태로 보는 것도 편할 수 있다.

3) 새로운 보존 방법을 연구하라.

무조건 모으기만 한다면 너무 오래된 자료는 점차 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바쁜 시간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보통 정성으로 기사 스크랩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다음에 설명할 통신에서의 기사 활용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기사는 혹시 스캐닝을 할 수 있다면 스캐닝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스

캐너와 고용량의 디스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중요한 사진 자료는 스캐닝을 하는 것이 자료 보관과 활용에 유익할 것이다.

6. 텔레비전이 바보 상자는 아니다

1) 방송 프로그램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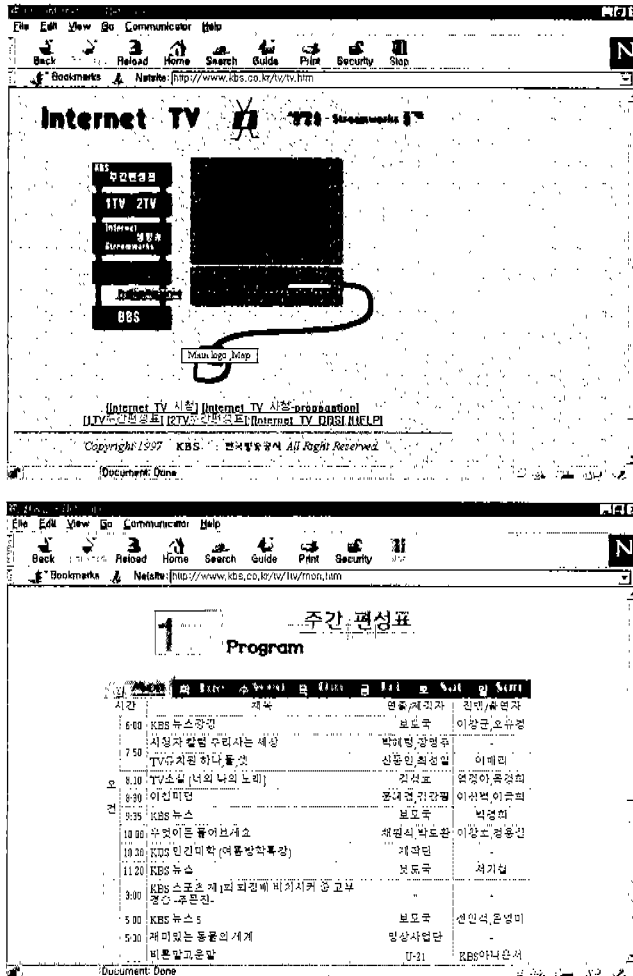
텔레비전에 대한 오래된 평가 중의 하나는 바보상자라는 것이다. 라디오에 비해 사람들로 하여금 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정말 아무 생각없이 텔레비전을 지켜본다면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지도하는 경우에 서 있다 보면 텔레비전 만큼 청소년 이해에 좋은 도구도 없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복장을 이해 못하겠거든 텔레비전의 음악 프로그램을 볼 필요가 있다. 엉뚱한 복장을 한 게 아니고 이른바 요즈음의 패션이다. 그렇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일단 신문에 나온 방송 시간표를 찾아 보자. 일주일간의 프로그램을 알고 싶으면 《TV가이드》와 같은 책을 구독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장로별로 구분해 본 다음 혹시라도 필요할 것 같은 프로그램에 표시를 해 보자. 청소년드라마, 음악프로그램(특히 순위 프로그램), 오락-쇼 프로그램(특히 주말 쇼 프로그램은 10대용이 된 지 오래다), 현장 다큐멘터리 등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록을 남기고 더 노력한다면 직접 보거나 아니면 녹화를 하면 좋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은 KBS의 1998년 11월 현재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표다. 매일 매일 변하는 프로그램을 방송국에서는 소식지, PC통신, 인터넷에 싣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면 편리한 점도 있지만 《TV가이드》와 같은 소식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림 4〉 방송 주간 편성표 예시



2) 방송국의 프로그램 녹화, 복사, 판매 서비스 활용

방송국의 모든 프로그램마다 녹화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책처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디오기기를 이용해 플레이를 실행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방송국에서는 방송프로그램 복사,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시리즈

로 된 경우는 방송국에서 미리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판매하는 프로그램 목록은 책으로 발간하여 기관에 무료로 보내주고 있다. 하지만 책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목록집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프로그램은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록집이나 별도로 기록해 둔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과 일자 등을 적어서 방송사(대개 판매전문회사를 별도로 운영함)로 보내면 된다. 그리고 해당되는 요금을 입금시키고 나면 복사된 비디오테이프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방송사별 프로그램의 복사, 판매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의 복사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방송사마다 필요한 사항은 우선 전화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방송사별 비디오 판매 담당	
KBS	KBS 영상사업단, [비디오 가이드] 발행 (영업 02-781-8431/2, 매장 02-781-8484/7)
MBC	MBC 프로덕션 [프로그램 가이드] 발행 (영상사업팀 02-789-0181, 판매 02-789-0289)
SBS	SBS 프로덕션 [프로그램 가이드] 발행 (02-784-1343/4)
EBS	영상사업부 (02-522-8400/1)

3) 인터넷의 방송국 프로그램

혹시 인터넷을 쓰는 데 지장이 없다면 방송내용을 인터넷에서 화면, 음성과 함께 시청할 수도 있다. 물론 동화상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대체로 REAL PLAYER 5.0이면 가능하다.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으려면 <http://www.real.com>에 접속하여 다운을 받아 설치하든지(다운을 받은 후 실행을 시키면 자동으로 설치가 됨, 단 사용환경을 지정) 방송사 웹 사이트의 다운 메뉴를 이용하여 s/w를 다운받도록 한다.

방송 프로그램 중에는 뉴스를 동화상으로 받아 볼 수도 있고 실시간 방송으로

생방송되는 프로그램도 있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 찾아 볼 수는 없고 화질도 떨어지므로 청소년 활동에 사용할 경우라면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야 한다.

방송국의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려면 웹 브라우저에서 다음을 입력한다

공중파 방송의 인터넷 주소

KBS <http://www.kbs.co.kr>

MBC <http://www.mbc.co.kr>

SBS <http://www.sbs.co.kr>

EBS <http://www.ebs.co.kr>

7. 온라인 신문은 방송만큼 빠르다

1) PC통신에서 청소년관련 기사 찾기

신문기사가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모으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료를 스크랩할 수는 있지만 최선의 대안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그 이유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신문사의 정보서비스를 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속보 코너를 이용하면 기사가 작성된 후 바로 통신화면에 뜨게 되므로 방송보다도 더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C통신에서 신문 기사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개별적으로 신문사의 정보서비스 코너에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는 여러 신문사의 기사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KINDS 서비스에(한국언론연구원 제공) 접속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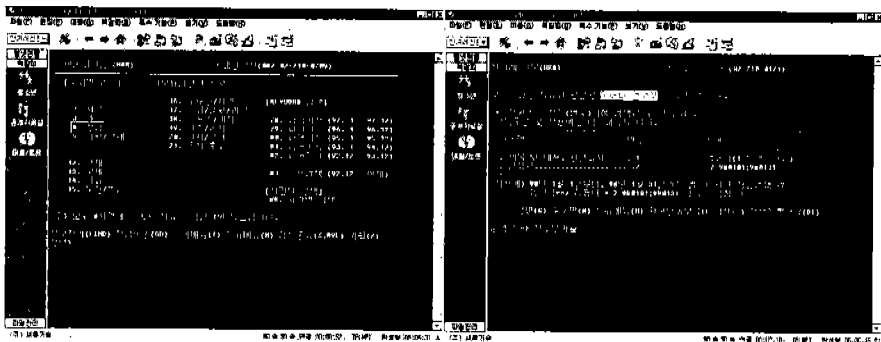
(1) 개별 신문사 코너 이용하기

개별적으로 신문사 정보 코너에 접속하는 방법은 PC통신에 접속한 후 첫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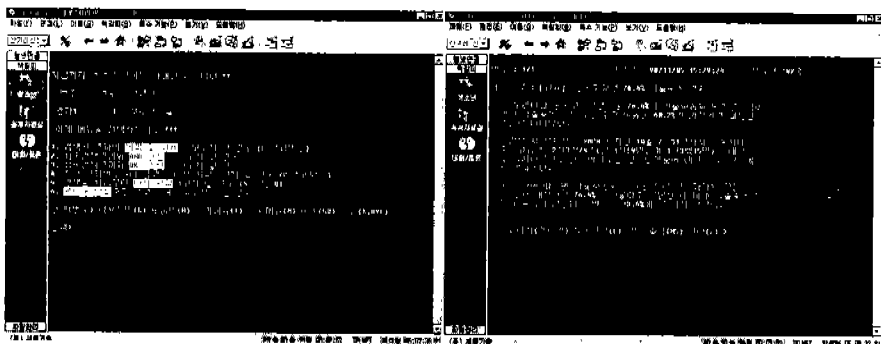
에서 '신문' 메뉴를 선택한다. 함께 묶여져 있는 메뉴가 차이는 있지만 대개 첫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나면 종합일간지나 스포츠신문이나 등 분야가 나온 후 원하는 분야를 선택한다. 다음에는 여러 신문사의 리스트가 나오고 원하는 신문사를 선택하면 된다.

메뉴 구성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종합보도 코너, 분야별 기사 코너와 검색 코너로 구성된다. 최근 기사는 일자별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과거의 기사를 한꺼번에 찾기 위해서는 '검색어' 활용이 가장 편리하다. 키워드 검색을 선택하여 '청소년' 등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된다. 특히 천리안의 경우에는 본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는 기사를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다. 또한 많

〈그림 5〉 PC통신에서 일간지 검색하기



1. 신문과 원하는 기사검색방법 선정
2. 키워드 검색선택 후 “청소년가출”입력



3. 검색결과 확인
4. 해당 메뉴에서 자료번호 선택

은 양의 기사일 경우 연속출력하여 PC에 저장할 수도 있다.

〈그림 5〉는 PC통신에서 서비스되는 일간지의 기사를 검색한 화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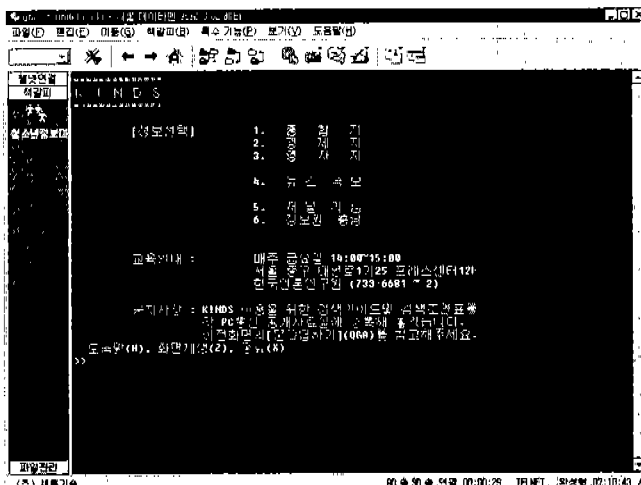
(2) KINDS 이용하기

다음으로 한국언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KINDS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카인즈 서비스는 주요 일간지의 전체 기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시에 가장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활용 방식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신문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용 방법은 언론연구원에서 교육을 하므로 사용법을 잘 모를 경우에는 검색해 볼 수 있다.

우선 KINDS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개별 PC통신망에서 GO kinds를 입력한다. 그리고 나면 서비스 연결과 안내 선택 메뉴가 화면에 나오게 된다. 안내가 필요하면 안내 메뉴를 선택하여 이용 방식을 알아 본다. 서비스에 접속하려면 1. 서비스 연결을 선택하고 이후에 잠시 기다리면 한국언론연구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컴퓨터에 접속이 된다.

다음에는 찾고자 하는 정보의 분야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종합지를 선택할 수

〈그림 6〉 카인즈 접속 후 화면



있다. 그리고 난 후 기사 검색 기간이 연도별로 나오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한다. 다음에는 기사 검색 방식을 묻는데 '1'은 '커맨드 방식'이고 '2'는 '메뉴 방식'이다. 커맨드 방식은 명령어를 사용하여 검색하는 것이고 메뉴방식은 원하는 메뉴의 번호를 선택하는 것이다. 명령어 사용이 익숙하고 기사를 바로 검색하고 싶다면 커맨드 방식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메뉴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메뉴 방식은 화면에 나오는 대로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다.

그러나 커맨드 방식은 몇 가지의 명령어를 알아야 사용할 수 있다. 명령어는 화면에 "명령?"이라고 찍힌 다음 커서에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들어간 기사를 찾고 싶으면 "명령?" 다음에 "S 청소년"이라고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청소년'과 '가출'을 찾고 싶으면 "S 청소년 & 가출" 하면 청소년과 가출이 동시에 들어간 자료의 건수가 화면에 뜨게 된다. 그리고 난 후 보고 싶은 방식을 화면을 통해 볼 때 "D P1"이라고 입력하면 검색한 기사의 제목과 서지사항을 화면에서 보게 된다.

다음은 커맨드 방식을 사용할 때의 명령어 사용 방법이다.

명령어 사용법

S(탐색)	: 원하는 자료를 찾을 때 (S뒤에 단어 입력)
D(표시)	: 탐색 결과를 화면을 통해 볼 때
P(인쇄)	: 탐색 결과를 프린터로 인쇄할 때
K(색인열람)	: 항목별 색인어와 수록건수 열람
C(탐색과정조회)	: 탐색과정 조회 및 결과 일부 취소
Q(탐색결과제거)	: 탐색결과 모두 취소
H(도움말)	: 검색방법에 대한 도움말
E(종료)	: 검색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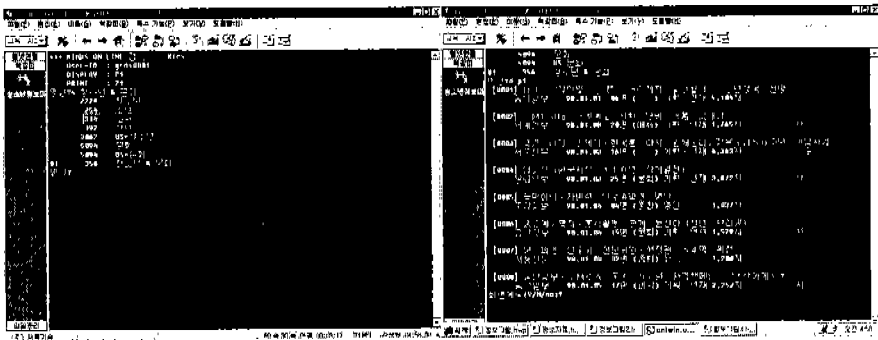
논리연산자

A&B(AND)	: A와 B가 동시에 들어간 자료
A!B(OR)	: A 또는 B 중 하나라도 들어간 자료
A^B(NOT)	: A가 들어간 기사중 B가 들어간 기사 제외 자료
A-B(EOR)	: A와 B가 동시에 들어간 기사를 제외한 A, B자료

출력형태

- D P1 : 검색한 기사의 제목, 서지사항만을 열람
- D P2 : 검색한 기사의 제목, 서지사항 및 초록 열람
- D P3 : 검색한 기사의 제목, 서지사항 및 본문전체 열람
- D Z1 : 검색한 기사의 제목, 서지사항만을 인쇄
- D Z2 : 검색한 기사의 제목, 서지사항 및 초록 인쇄
- D Z3 : 검색한 기사의 제목, 서지사항 및 본문전체 인쇄

〈그림 7〉 커맨드 방식에 의한 kinds 검색



2) 인터넷에서 청소년관련 기사 찾기

똑같은 신문기사라도 PC통신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그림이나 사진 자료활용에 훨씬 편리하다. PC통신에서는 별도의 그림 파일로 제공되지만 웹서비스에서는 화면상에서 사진을 보고 바로 저장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언론연구원의 카인즈도 역시 인터넷으로도 서비스 되기 때문에 PC통신보다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사를 찾는 방법은 분야별, 일자별로 찾거나 검색어를 입력하여 찾는 방법이 공통적으로 있다. 그리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 각 메뉴의 현황을 알려주는 코너도 있다(대개 사이트 맵으로 불림). 원하는 메뉴나 기사를 클릭하면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각 신문사에서 발간하는 다른 신문이나 잡지도 화면에 같이 나타나므로 필요하면 해당 잡지에 가서 클릭만 하면 된다.

인터넷 전자신문 주소는 다음과 같다.

주요 일간지 인터넷 주소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www.joongang.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ibbo.co.kr
한국일보	http://www.korealink.c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국민일보	http://www.kukmin.com
대한매일신문	http://www.seoul.co.kr/dmaeil
세계일보	http://www.segyetimes.co.kr

8. 청소년 관련 비디오 활용하기

1) 비디오 찾아 보기

청소년단체나 회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비디오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영화감상, 영화비평, 활동 프로그램용 비디오 상영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활용할 수 있는 비디오 작품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1) 시청각자료목록집

일단 책자 형태로 청소년관련 비디오 목록을 조사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연맹에서 1993년도에 문화관광부의(당시 문화체육부) 지원으로 발간한 《시청각자료목록집》이 있다. 비디오 자료뿐만이 아니라 영화, 슬라이드 자료도 함께 정리되어 있

다. 그리고 12개의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므로 용도에 맞게 찾아볼 수 있다.

(2) 분야별 전문기관 자료 조사

각 기관 또는 개인별로 비디오 테이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녹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앞의 전화번호 참조). 또는 분야별로 해당 전문기관에 연락해 보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정보화와 관련된 비디오는 한국정보문화센터로 연락하면 정보화 관련 비디오 목록을 구할 수 있다(<http://www.icc.or.kr>로 접속하면 목록과 내용, 이용방법을 알 수 있다).

(3)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

다음으로는 비디오를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로 연락을 해 보는 방법이 있다. 필요한 비디오 자료를 소장하고 있거나 적어도 소재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각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돈보스코 청소년회관(02-833-0410)의 '돈보스코 문화정보센터'나 서울 YMCA의 '건전비디오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현재 한국청소년개발원 자료실에는 비디오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자료실 내에서 직접 시청하여 볼 수 있다.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 문화, 비행과 관련된 방송사 프로그램이나 단체에서 제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소장된 자료의 검색 문의는 자료실(02-578-7924)로 연락하면 된다.

2) 영화 비디오 자료

교육용 비디오 자료와 달리 영화비디오 자료를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우선 영화와 관련된 책자를 시중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사람도 서울의 대형서점에 오기는 어려운 일이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1) 영화전문 소식지

영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를 구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한겨레신문에서 발행하는 《씨네 21》과 같은 잡지가 있다. 아니면 ‘오피와 버금’, ‘영화마을’과 같은 비디오 대여점 협의회 소식지를 받아 보는 방법이 있다.

(2) 영화전문 도서 자료

영화전문 책자를 구입하는 것인데 특히 청소년들이 볼 만한 영화를 소개한 자료를 구하면 좋을 것이다. 우선 YMCA 건전비디오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발간한 《청소년을 위한 좋은 비디오 120》, 현민시스템에서 발간한 《논리 공부는 비디오로 하는 게 더 좋다》(1994) 등이 있다.

영화를 보는 방법을 소개한 책은 직접 조사하면 되겠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자료를 우선 찾아보기를 권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위한 토론식 영화 감상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여간내기의 영화교실》(김동훈 저, 대경출판, 1996)과 같은 자료를 참고할 만하다. 영화를 보는 방법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문제 제기, 경험 발표를 곁들여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3) 통신을 이용한 자료 조사

가장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다. PC통신에서는 메뉴 방식에 따라서 영화, 비디오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대체로 문화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인터넷은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분류에서는 영화, 비디오 관련 분류를 선택하면 된다. 아니면 검색어에 원하는 영화 제목을 입력하면 관련된 웹 페이지 목록이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통신서비스 활용 방법에서 기본적인 절차는 소개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정보 찾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찾아 보는 일이다.

비디오나 영화, 기타 영상매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한 청소년 영상매체 건전활용 지도지침서인 《영상매체 바로 보기 I, II, III》(1997)은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영상매체의 활용방법과 활용 프로그램의 실제, 그리

고 영상매체 관련 프로그램과 제도 및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자료문의는 02-578-7924).

9. 전자서점 활용하기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서점에 한 번도 안 가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서점도 점차 대형화되어 가면서 서적뿐만이 아니라 각종 CD 등 첨단 자료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서점을 잘 이용하면 외국 논문 구입 대행도 가능하다.

그러나 서점에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 또는 지방에 있어서 서울의 서점에 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 통신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 서적은 필요한 자료를 고른 후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

우선 국내의 서점을 들어가 보자. PC통신의 문헌자료 관련 메뉴를 들어가 서점 코너를 선택한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서점을 입력하거나 분류에서 서점을 선택해 나간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등이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사용은 화면에 차이가 있지 PC통신이나 인터넷이나 기본은 마찬가지이다. 세 대형서점의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다.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종로서적 <http://club.shopping.co.kr/seoul/book>

영풍문고 <http://www.ypbs.ypboo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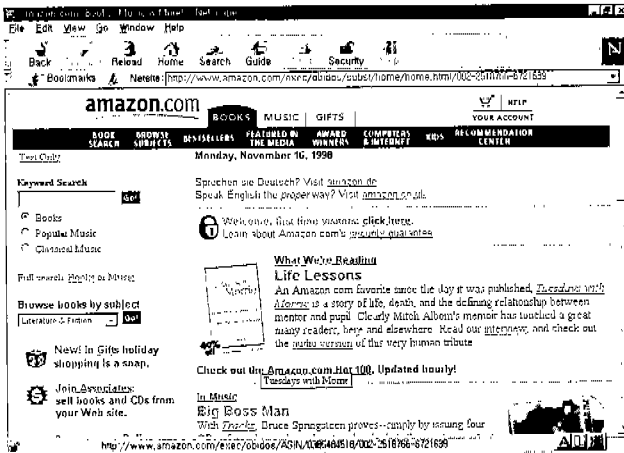
그런 다음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목록을 검색해 본다. 분류에서 검색하든지 검색어로 검색한다. 책뿐만이 아니라 CD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료의 목록을 적어서 후에 서점에 직접 찾아가 내용을 보면서 구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통신으로 구입할 수 있다. 구입 메뉴를 선택하면 그만인 것이다.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대금 결제만 하면 된다.

그런데 국내 서점의 판매서비스 이상으로 인터넷 서적 판매만 전문적으로 하

는 회사가 있다.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라는 업체인데 접속을 위해서는 <http://www.amazon.com>을 입력하면 된다. 그런데 이미 다른 사이트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배너 광고가 나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가장 큰 서점인 반즈앤노블에서도 전자서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접속은 <http://www.barnesandnoble.com>을 입력하면 된다. 두 업체의 서비스 방식은 큰 차이가 없지만 자료의 분류 방식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아

〈그림 8〉 아마존의 홈페이지 화면



〈그림 9〉 PC통신의 전자 서점 사례 화면



교보문고

예인정보

미존의 특징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 매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단지 창고와 서비스를 위한 회사 공간만 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전 세계로 납품하고 있다.

PC통신망의 전자서점은 천리안의 경우 문학 관련 메뉴에서 전자서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홈쇼핑 메뉴를 선택한 후 도서코너를 선택하면 교보문고 등의 전자서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10. 전자도서관 활용하기

도서관은 독서실이 아니다. 도서관은 그 자체로 정보의 창고가 되어야 한다. 특히 각 지역에 소재한 도서관은 비록 장서 보유량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미치기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이 더 편리한 경우가 많다. 보지 않아도 될 책이 너무 많아서 찾기 어려운 것보다는 많이 보는 책들로 적당한 수량의 장서를 갖고 있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서점과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책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된다면 앞으로 굳이 찾아 갈 필요는 없어지고 있다. 물론 도서관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방식이 일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자료의 디지털화로 인해 전자도서관 중심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한다.

전자도서관이란 인쇄되어 있는 자료를 입력, 스캐닝 과정 등을 거쳐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면서 컴퓨터 화면에서 책을 보는 시스템을 말한다. 실제 책이 1권 이라면 1명만 볼 수 있지만 디지털화되어 있다면 한 꺼번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 컴퓨터 파일로 입력된 자료들은 언제라도 꺼내어 볼 수 있고 영구히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서비스이다.

현재 전자도서관 사업은 국가 중요 정보화사업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등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들도 있다. 중앙도서관의 인터넷 서비스는 아직까지 모든 장서를 본문까지 디지털화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본문 서비스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http://www.nl.or.kr>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dlibrary.or.kr> 전자도서관

정보통신부에서 주요 도서관을 한 데 묶어 놓은 종합전자도서관(국립중앙
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학술진흥재단, 연구개발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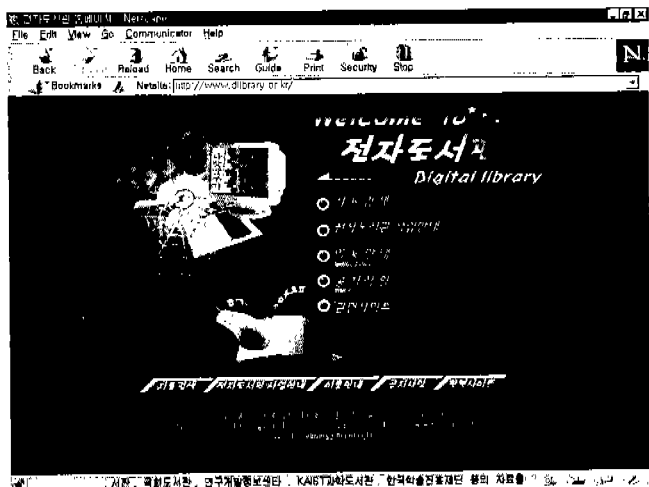
<http://www.lg.or.kr> LG상남도서관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http://www.solarsnet.snu.ac.kr>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현재 청소년분야에서도 자료 본문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앞으로 청소년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YOUTHNET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발원의 발간 및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전자도서관 구축을 준비중이다.

〈그림 10〉 전자도서관



Ⅲ. 청소년관련 전문정보 찾아 보기

1. 정보의 정보를 활용하자

전문적인 분야의 정보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는 ‘정보’를 모아 놓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청소년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많고 많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하나 하나 찾아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청소년수련거리백과》라 하여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책자와 CD로 제작하고 있다.

상담기관을 찾기 원한다면 청소년대화의 광장에서 발간한 《전국청소년상담기관 현황조사 및 편람》(1996)을 활용할 수 있다. 수련시설은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편람》을, 청소년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청소년단체편람》을 사용하면 된다. 혹시 단체에서 청소년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인명정보DB’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 교사라면 교과정보와 청소년관련 정보를 찾는 방법을 소개한 자료로 (주)우리교육에서 발행한 《교과지도 정보찾기 일곱마당》(1998)를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중등 우리교육 창간 8주년 기념 별책부록으로 발간되었으며, 청소년정보 안내자료 제작에 많이 참고가 되었음).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한 데 묶어 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신서비스이다. 통신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정보를 찾는 노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음에는 일반적인 ‘정보’의 정보원을 소개하고 각 분야별로 정보를 모아놓은 정보를 차례대로 알아 보겠다.

1) 각종 연감을 활용하기

다양한 분야별로 매년 발간되는 연감은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각종 통계를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 특히 인명정보도 연감 형태로 또는 인명정보원으로 발간되고 있다. 발행 기관은 정부 부처인 경우도 있

지만 신문사나 기타 공공기관인 경우가 많다. 청소년과 관련되어 필요한 연감은 대부분 청소년개발원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필요한 내용을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는 연감도 있지만 한국교총 부설 교육신문사에서 발간하는 《교육연감》과 같이 전문분야별로 주요 사항을 정리하는 연감들도 활용할 수 있다.

(1) 정보원총람

한국언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자료로 1권은 기관편, 2권은 전문가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기관은 나름대로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만큼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관 연락처를 아는 것만으로도 정보를 찾는 노력이 상당히 줄어든다. 기관편에서는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19,500여 개의 기관 주소와 현황이 실려 있다. 분류는 8개 대분류에 49개 중분류 그리고 1,800개의 소분류로 되어 있다.

2권 전문가편에서는 전문분야별로 전문가를 소개하고 있다. 기관편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주요한 인사들을 소개한다. 인원수는 총 12,500여 명으로 10개 대분류와 73개 중분류 그리고 1,800개 소분류로 나뉘어 있다.

(2) 동아연감

동아일보사에서 발간하는 연감으로 특집과 함께 한국편, 세계편, 통계편, 편람·자료·명부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별책으로는 주요 인물을 소개하는 《한국·외국인명록》이 있다. 국내 인물은 1만 5,000여 명을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고 외국인은 2,000여 명을 수록하였으며 역사인물록을 별도로 정리하여 두었다. 특히 개인별로 사진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3) 연합연감

연합통신에서 발간하는 연감으로 국내외 전반에 걸쳐 주요한 기록들을 정리하였다. 연합연감도 별책으로 《한국인명사전》을 발간하여 국내의 주요 인물 1만

6, 200여 명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 2의 별책부록으로 《자료집》을 발간하여 각종 주요 통계, 편람, 주요기관, 국내 인터넷 주소록 등을 소개하고 있다.

2) 청소년백서를 활용하기

청소년정책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가장 유익한 자료중의 하나가 <청소년백서>이다.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다.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각 부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공식적인 자료로 발간된다. 내용 구성은 인구 현황, 의식, 건강과 안전, 교육, 근로, 활동, 복지, 비행, 교류, 육성기반 조성의 10개 영역으로 되어 있다. 청소년백서 이외에도 각종 백서는 청소년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백서의 구입은 대형서점의 정부간행물 코너에 들리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청소년개발원의 인터넷 서비스인 YOUTHNET의 청소년현황 메뉴를 선택하면 주요 내용을 볼 수 있다(<http://www.youthnet.re.kr>). 이외에도 사회통계나 여성백서 등 관련된 통계집이나 백서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출판 안내물 활용하기

정보원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는 도서자료이다. 신문이나 각종 잡지 등에 새로 나온 출판물 안내가 나오지만 하나 하나 모으기는 어려운 일이다. 한 달 사이면 수많은 자료가 나오는데 모든 책 이름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외국의 연구논문이나 자료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알기도 어렵다. 그리고 서점에 가더라도 책이 있는지 미리 알고 간다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점은 출판물 소식을 알려주는 정보지를 활용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 도서목록 안내

먼저 도서관의 자료 소장 정보가 필요하다면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도서관을 검색할 수 있다. 기존에 발간된 도서 정보를 분류한 목록집을 찾는다면 한국대학출판부협회에서 펴낸 《종합도서목록》과 같은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2) 신간자료 안내

새로 나온 자료 또는 도서관의 신착자료를 알고 싶으면 소식지 형태의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자료 파악은 ‘납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 대상 자료는 도서, 연속간행물과 같은 서적만이 아니라 음반, 비디오 테이프, CD 제작물, 전산화 자료, 지도, 슬라이드, 마이크로 필름 등 모든 자료가 해당된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는 매월마다 납본된 자료를 《납본월보》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자료 구성은 정부간행물, 일반도서, 아동도서 및 비도서자료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제작되어 출간되는 자료들은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에서 발간하는 《출판저널》이나(연락처 02-732-1433)이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서평문화》, 《간행물윤리》를 참고할 수 있다(연락처 02-704-3360). 《출판저널》은 격주간으로 발행되며 특히 새책 소개뿐만 아니라 서평이 많이 실려 있어 자료를 선별해야 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유용한 정보가 된다. 《서평문화》나 《간행물윤리》에는 청소년추천도서가 포함되어 있어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정부기관 간행물 목록

정부나 정부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들은 정부간행물로 분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간행물제작소에서는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02-733-5482) 《정부간행물목록》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목록의 구성은 행정부,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 시 교 육청, 정부투자기관, 정부유관기관으로 6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자료는 정부유관기관 영역에서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요즈

음에는 정부간행물도 서점에서 유상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행물별로 간단한 내용과 함께 판매 자료는 가격도 표시되고 있다.

또한 PC통신의 행정종합정보인 '열린정부' 코너에 접속하면 목록을 볼 수 있다. 접속방법은 통신망마다 첫화면에서 '정부, 공공기관' 메뉴 선택 후 다시 '열린정부'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인터넷은 <http://natis.gcc.go.kr>로 접속하면 된다.

2. 연구자료 목록 만들기

청소년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기관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도 연구자료 구하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학 자체가 관련 분야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아직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하면 연구를 위한 자료들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다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청소년학의 다학문적이고 제학문적인 특성을 생각한다면 관련 분야는 전반적으로 자료원을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연구자료를 나름대로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료가 나를 위해서 미리 한 군데 모여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1) 논문/단행본 자료

학위 또는 연구논문자료나 단행본 자료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의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한국청소년개발원의 PC통신 서비스인 '청소년정보마을'을 활용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은 현재 PC통신망은 천리안을 통해서 제공되며 본문 자료에 대한 키워드검색 기능을 생각할 때 천리안 이용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국회도서관의 논문검색에서 '청소년'을 입력하면 직접적인 영역으로 보기 어려운 영역의 자료까지 함께 분류되어 자료 건수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

PC통신 '청소년정보마을'에서는 중앙도서관 자료를 기준으로 학위논문자료의 서지 사항을 재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단행본 자료는 자체적으로 소장한 자

로 중 청소년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목차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1985년과 1998년 2회에 걸쳐 청소년 관련 학위논문을 정리하여 《청소년관련 학위논문 목록집》으로 발간하였다(0336-638-9055). 책자 형태로 발간하였으므로 활용하기에 편리할 것이다.

(2) 통계자료 찾기

통계자료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는 청소년백서 등 각종 백서나 연감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통계청에 접속하여 보면 다양한 통계자료를 파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부 코너에서 접속). 그리고 PC통신 ‘청소년정보마을’에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관련 통계 결과를 목록과 함께 통계표를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접속 인덱스는 통신팜 정보 자료 참조).

통계청의 통계 자료

일반적인 통계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에서 발간한 자료 중 《통계소제정보안내》(1996)는 통계항목별, 통계간행물별, 기관별 통계간행물을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현황은 건설교통부로, 문화공간현황은 문화관광부로 안내하면서 전화번호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통계자료를 찾을 수 있는 간행물명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통계연감》, 《국제통계연감》, 《한국의 사회지표》와 같은 통계청 발행 자료는 전반적인 통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물론 통계청 정보도 PC통신에서 정부 메뉴 내에서 제공되므로 통신서비스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갤럽의 조사 자료

통계정보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서 발간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총람》(1992~1997)을 참고할 만하다. 상하 두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청소년은 하권에 교육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그 동안 실시된 여론조

사 결과를 영역별로 재정리하여 통계정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꺾림에서 실시한 청소년조사 보고서로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이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 11개국의 청소년들의 의식과 생활을 종합적으로 비교 조사, 분석한 자료이다.

3. 법률/정책정보 서비스를 활용하기

청소년정책 연구자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든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가 청소년 관련 정책 자료들이다. 특히 법령은 청소년활동에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집행에 주요 시책이나 절차는 활동 지도자들에게도 주요한 사안이 된다.

1) 청소년관련 법령 자료

먼저 청소년관련 법령 정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본법령과 청소년보호법령이 있다. PC통신 '청소년정보마을'을 이용하면 지도/연구자료 메뉴 안에서 파일로 법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은 매우 다양하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1990년에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조사하여 각 법령의 전문 또는 발췌를 통해 《청소년관계법령집 I, II》를 발간하였다.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이야 많이 바뀌었겠지만 어떠한 법령이 관련이 되는지 알려주는 정보원이 될 것이다. 당장은 관련 법령의 목차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컴퓨터에 파일로까지 받기를 원한다면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면 된다. 국가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이며 법령집을 제작 보급하는 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령CD를 제작, 판매하는 법률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http://www.naralaw.com>).

2) 정책 관련 자료

법령이 근거가 되어 집행되는 각종 정책이나 기타 정부의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정보는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관보에 주요한 사항들이 고지되지만 이를 일반인들이 쉽게 알기는 어렵다. 관보 서비스는 주로 행정기관으로 제공되지만 PC통신에서도 정보가 제공된다. PC 통신망의 정보메뉴를 선택하여 열린정부에 접속하면 관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문화관광부의 인터넷 서비스 <http://www.mct.go.kr>로 접속하여 문화관광부 코너에서 정책 소식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청소년소식’은 정책 분석과 정책 과제를 알려주고 있다.

한 가지, 통신에서 정부 정책이나 법령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다. 여기 저기 헤매고 다닐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열린정부’ 서비스가 PC통신망마다 개설되어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열린정부’ 서비스에는 웬만한 자료들이 거의 수록되어 있고 정부의 공식 자료라는 점에서 적극 활용할 만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정부의 정보화 노력도 더 커질 것이다.

4. 외국의 청소년 관련 자료

1) 외국의 청소년 소개 자료

청소년연구나 활동에 매우 필요하면서도 현재 상당히 부족한 자료가 외국의 청소년 관련 정보다. 현재 발간된 외국 청소년활동 자료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1990년과 1994년에 발간한 외국의 청소년 활동 및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있다. 이 자료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청소년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하였다.

외국의 청소년기관과 활동 프로그램 목록은 PC통신 ‘청소년정보마을’의 해외

청소년정보 코너에서 얻을 수 있다.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청소년정보망 사업을 통해 외국의 청소년정보망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외국의 청소년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요 나라의 청소년 관련 부처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별로 관련된 기관의 사이트를 찾아 보는 방법이 있다. 유네스코청년원에서 발간한 인터넷 소개 자료 책자에 실린 외국의 청소년 정부 부처 주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Internet Atlas on Youth* 참조)

외국의 청소년정책 담당 부서

- <http://www.deetya.gov.au> (호주/고용·교육·훈련·청소년부)
- <http://www.bmu.gv.at> (오스트리아연방/가정·환경·청소년부)
- <http://www.hrdc-drhc.gc.ca> (캐나다/인간자원개발부)
- <http://www.mineue.fi> (핀란드/교육부 체육청소년국)
- <http://www.jeunesse-sports.gouv.fr> (프랑스/청소년체육부)
- <http://www.bmfsfj.de> (독일연방/가정·성인·여성·청소년부)
- <http://www.somucho.go.jp> (일본/총리부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
- <http://www.kbs.gov.my> (말레이시아/청소년체육부)
- <http://www.youthaffairs.govt.nz> (뉴질랜드/청소년부)
- <http://oden.dep.no/bfd> (노르웨이/가정·아동부)
- <http://www.sejuventude.pt> (포르투갈/청소년부)
- <http://domino.kappa.ro/guvern/minitere.nsf> (루마니아/청소년체육부)
- <http://www.mss.edus.si/um> (슬로베니아/교육·체육부 청소년국)
- <http://www.mtas.es> (스페인/노동·사회부 청소년연구소)
- http://www.sb.gov.se/info_rosenbad_eng/ministries/interior.html
(스웨덴/내무부 비정부단체·청소년정책국)
- <http://www.thaigov.go.th> (태국/총리실 청소년국)
- <http://www.mec.gub.uy> (우루과이/교육문화부)
- <http://www.os.dhhs.gov> (미국/보건·인간서비스부 가정·아동·청소년과)

외국의 청소년정보센터 사이트

<http://www.acys.utas.edu.au> (호주 청소년연구정보센터)

<http://infoweb.magi.com/~crccy> (캐나다 아동·청소년자료센터)

<http://www.cyfernet.org> (미국/아동·청소년·가족교육및 연구네트워크)

<http://www.alli.fi/euro/eryica> (유럽 청소년정보·상담기구)

http://www.commune.torino.it/~infogio/e_n.htm

(이탈리아 청소년정보센터 및 기타 단체 정보 제공)

<http://www.sub.su.se/sam/nyri/nyri.htm> (북유럽 청소년연구정보센터)

http://www.rebidia.org.br/www_rebi.html

(브라질 아동·청소년 정보·문서 네트워크)

<http://www.thesite.org.uk> (영국의 청소년정보소재 제공사이트)

<http://www.un.org/esa/socdev/unyin.htm> (유엔 청소년정보 네트워크)

<http://www.jugendinfo.at> (오스트리아 정보센터들의 링크)

2) 외국의 청소년 연구 정보

현재 한국청소년개발원 자료실에는 국외 연구자료나 활동자료 및 연구저널을 소장하고 있다. 연구자료는 방문, 전화, PC통신 ‘청소년정보마을’ 등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소장된 자료는 복사가 가능하다. PC통신 ‘청소년정보마을’의 지도/연구 코너에서는 일부 연구저널의 목차와 초록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구독하고 있는 국외 저널 중 몇 가지 목록만 소개한다.

Adolescence (Libra Publishers, Inc.)

Child Abuse & Neglect (Pergam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Pergam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Sage Periodicals Pres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Plenum Pres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Sage Publications, Inc.)

Youth and Society (Sage Periodicals Press)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정보 활용하기

청소년활동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역시 프로그램 자료원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수련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지방의 지도자들이 찾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청소년시설이나 단체간에 프로그램이 교류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청소년수련활동사례집》이 있다. 주로 시·도별로 문화관광부와 시·도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는 문화관광부 수련지도과에서 발간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련거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다음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제작하는 수련거리 관련 자료들이 있다. 1992년부터 수련거리 개발을 시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995년부터 실시한 수련거리 시연회는 시연을 위한 자료로 작성되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수련거리백과》를 발간하고 있다. 1995년은 <청소년수련거리백과 발간을 위한 기초 연구>를 통해 단체, 생활권, 자연권 시설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수집 정리하였다. 1998년은 자연권시설, 1999년은 생활권 및 단체의 수련거리를 수집 정리하여 책자와 CD로 제작 보급할 것이다.

이외에도 청소년단체와 수련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정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각 기관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 등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협의회 연례보고서에 기록이 된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연례보고서 등을 활용하면 프로그램 목록을 구할 수 있으며 진행자와의 접촉을 통해 세부 자료를 교류해야 한다.

그리고 수련거리 자료들은 대부분 PC통신 '청소년정보마을'과 인터넷 서비스인 YOUTHNET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통신을 통해 접속하면 자료를 파일로 받을 수도 있다.

IV. 청소년관련 기관 찾아가기(주소록)

1. 정부기관 찾아가기

1)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1998. 12. 현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82-1 URL : <http://www.mct.go.kr>)

과명	담당 업무
청소년기획과 tel 02-3704-9910-4 fax 02-3704-9919 e-mail youth@www.mct.go.kr	청소년정책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 청소년관련 업무의 부처간 협의·총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용 청소년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청소년 백서 등의 발간
청소년수련지도과 tel 02-3704-9920-4 fax 02-3704-9929 e-mail youthfd@www.mct.go.kr	청소년 전전육성을 위한 사회운동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청소년단체의 인가 및 육성·지원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 청소년시설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청소년수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교류과 tel 02-3704-9930-4 fax 02-3704-9939 e-mail youthcdl@www.mct.go.kr	국제청소년기구와의 교류·협력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 파견 지원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교포청소년의 육성 및 지원 남북청소년교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보호위원회 (1998. 12. 현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내)

보호기획과 : 02-735-6253

교육홍보과 : 02-735-6250

보호기준과 : 02-735-2646

보호조사과 : 02-735-2648

3) 시·도 청소년 담당 부서 (1998. 12. 현재)

시·도 담당부서	주 소(전화/팩스)
서울특별시 청소년과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tel 02-3707-9257 / fax 02-3707-9258
부산광역시 체육청소년과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번지 tel 051-888-2972 / fax 051-888-2679
대구광역시 청소년과	대구시 중구 동인동 1가 번지 tel 053-429-2532 / fax 053-429-2539
인천광역시 체육청소년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 번지 tel 032-440-3293 / fax 032-440-3269
광주광역시 청소년과	광주시 동구 계림동 505-900 번지 tel 062-225-7607 / fax 062-226-0574
대전광역시 체육청소년과	대전시 중구 대흥2동 499-1번지 tel 042-250-3324 / fax 042-250-3329
울산광역시 체육청소년과	울산시 남구 신정1동 646-1 번지 tel 052-228-2793 / fax 052-228-2799
경기도 청소년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번지 tel 0331-249-2552 / fax 0331-249-2549
강원도 체육청소년과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tel 0361-257-5101 / fax 0361-249-2549
충 청 북 도 체육청소년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tel 0431-220-2531 / fax 0431-220-2269
충 청 남 도 체육청소년과	대전시 중구 선화동 287번지 tel 042-251-2532 / fax 042-251-2539
전 라 북 도 체육청소년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tel 0652-280-2533 / fax 0652-283-6853
전 라 남 도 체육청소년과	광주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tel 062-232-5713 / fax 062-232-5713
경 상 북 도 체육청소년과	대구시 북구 산격1동 1445-3번지 tel 053-950-2512 / fax 053-950-2519
경 상 남 도 아동청소년과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tel 0551-279-2513 / fax 0551-279-2519
제주도 사회복지과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2 번지 tel 064-740-1169 / fax 064-740-1621

2. 청소년종합상담실 찾아가기

시·도	주 소(전화/팩스)
청소년대화의광장	서울 중구 신당6동 292-61 tel 02-730-2000 / fax 02-253-3817 http://www.kyci.or.kr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서울 중구 수표동 27-1 tel 02-267-2914 / fax 02-285-1315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실	부산 진구 전포 4동 666-6 세화빌딩 3층 tel 051-804-5001 / fax 051-804-5056
대구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702 대구청소년수련원내 tel 053-654-2002 / fax 053-654-0540
인천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실	인천 남구 송의동 118-25 그린힐빌딩 4층 tel 032-888-2161 / fax 032-888-2165
광주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실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19번지 YMCA내 tel 062-226-8181 / fax 062-232-2003
대전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실	대전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tel 042-257-2000 / fax 042-257-2077
울산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실	울산 중구 옥교동 160-8 tel 052-212-0920
경기도 청소년종합상담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교동 140-4 성진빌딩내 tel 0331-225-5800 / fax 0331-225-5804 http://203.233.112.2
강원도 청소년종합상담실	강원 춘천시 사농동 277-1 강원도수련원 2층 tel 0361-56-2000 / fax 0361-241-8181
충 청 남 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충남 천안시 원성동 543-4번지 tel 0417-554-2131 / fax 0417-556-8704
충 청 북 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19-5 tel 0431-57-4834 / fax 0431-258-3422
전 라 남 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전남 순천시 장천동 78-3 순천 YMCA내 tel 0661-742-5006 / fax 0661-742-5008
전 라 북 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1600-6 전주 YMCA내 tel 0652-273-1411 / fax 0652-273-1413
경 상 남 도 청소년종합상담실	경남 창원시 삼동동 산 27-2 늘푸른전당내 tel 0551-273-2010 / fax 0551-273-2012
경 상 북 도 청소년종합상담실	경북 안동시 신안동 290-3 tel 0571-853-3011 / fax 0571-853-3014
제주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제주 제주시 일도 2동 141-4 기봉빌딩 내 tel 064-721-1005 / fax 064-722-8019

3.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찾아가기

시·도	주 소(전화/팩스)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교동빌딩내 tel 02-578-4104 / fax 02-576-4104
부산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부산시 진구 양정2동 260-5 양정청소년회관내 tel 051-852-3461 / fax 051-852-3463
대구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대구시 달서구 송현1동702 청소년수련원내 tel 053-623-4083 / fax 053-627-3307
인천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산29-6 연수구수련관 tel 032-833-8057 / fax 032-833-8056
광주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광주시 동구 수기동 5-4 홍사단회관내 tel 062-234-0755 / fax 062-223-4885
대전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대전시 서구 만년동 396 평송청소년수련원 tel 042-488-0732 / fax 042-488-0734
울산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울산시 남구 옥동 336-2 근로청소년복지관 tel 052-227-0606 / fax 052-227-0608
경기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경기도 수원시 화서2동 436-3 tel 0331-297-0880 / fax 0331-297-0883
강원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강원도 원주시 인동 242-16 카톨릭센터내 tel 0371-763-3004 / fax 0371-766-3004
충 청 북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충남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tel 0431-256-4504 / fax 0431-220-5657
충 청 남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충남 논산시 취암동 182-5 tel 0461-736-9003 / fax 0461-733-1984
전 라 북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108 tel 0652-284-9420 / fax 0652-284-9422
전 라 남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전남 목포시 무안동 5-52 tel 0631-243-1450 / fax 0631-243-1452
경 상 북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경북 안동시 신안동 290-3 tel 0571-857-4445 / fax 0571-857-4447
경 상 남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경남 창원시 두대동 145 창원종합운동장내 tel 0551-264-2311 / fax 0551-264-2355
제주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141-4 기봉빌딩 tel 064-726-4101 / fax 064-726-4020

4. 청소년단체·시설 찾아가기

청소년단체와 수련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정보는 일차적으로 단체와 시설 편람을 활용할 수 있다. 단체나 시설과 관련한 정책 관련 전반적인 업무는 문화관광부의 수련지도과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는 각 시·도 청소년과에서 담당하며 기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단체의 개요에 관한 자료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청소년단체편람》이 있다. 한글과 영문으로 각 단체의 주요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청소년단체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영역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그 자체가 전문 정보센터가 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자료는 매년 문화관광부 청소년수련지도과에서 《청소년수련시설편람》과 《청소년수련시설현황》을 발간하고 있다. 《편람》에서는 시설별로 주요 특징과 약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정부간행물 코너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현황》은 주로 시설 관련 통계자료와 주소로 되어 있다.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청소년개발원 자료실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련시설 편람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 유스호스텔의 경우는 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서 편람을 별도로 제작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협회에서는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특히 자연권 수련시설 관련 자료 도움을 받을 수 있다(연락처는 다음의 각 기관별 주소와 전화번호를 참조).

그러나 발간되는 자료 부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책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PC통신은 ‘청소년정보마을’을 그리고 인터넷은 <http://www.youthnet.re.kr>로 접속하면 더욱 자세한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체나 시설별로 개설한 인터넷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단체 주소록

단체명	주 소 (전화/팩스/E-MAIL)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3-7 tel 02-825-5571 / fax 02-841-1150 nkyokway@chollian.net
국제경상학생협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전경련회관 지하1층 tel 02-784-5769 / fax 02-784-5769 aiesec@shinbiro.net
국제청소년문화협회	서울 용산구 갈월동 69-3 tel 02-716-3448 / fax 02-703-5576
국제학생기술연수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8 두진빌딩 5층 tel 02-3452-3181 / fax 02-3452-3185 htc96@kotis.net
GREEN FAMILY 연합 녹색소년단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0 기쁜빌딩 3층 tel 02-732-0890 / fax 02-732-0896 hitelgs@hitel.net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146 tel 02-634-8211 / fax 02-671-8212 ppfk@unitel.co.kr
대한불교청년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38-3 tel 02-738-3385 / fax 02-735-2707 kyba@chollian.net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	서울 종로구 견지동 39-1상운중심3층301호 tel 02-735-8165 / fax 02-722-6623
대한YWCA연합회	서울 중구 명동 1가 1-3 tel 02-774-9702 / fax 02-774-9724 ywcal@chollian.net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적십자	서울 중구 남산동 3가 32 tel 02-755-9301 / fax 02-777-1690 RCY0@hitel.net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302호 tel 02-763-9940 / fax 02-745-8827
SEOUL 청소년지도육성회	서울 중구 수표동 27-1 서울시립청소년회관내 tel 02-279-7604 / fax 02-266-3211 youthc@chollian.net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3-7 세종빌딩 402호 tel 02-823-0214 / fax 02-823-0215

단체명	주 소(전화/팩스/E-MAIL)
EXPO과학소년단	대전 유성구 도룡동 3-1 tel 042-866-5201 / fax 042-866-5259
원불교청년회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tel 0653-850-3321 / fax 0653-850-3222 bdyun@won.won.buddhism.or.kr
UNESCO한국위원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성원빌딩 10층 tel 02-501-7127 / fax 02-539-3390 infoy@kuyc.unesco.or.kr
UN한국학생협회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빌딩 복합동 816호 tel 02-736-5043 / fax 02-736-5045 toder@unitel.co.kr
일암청소년육성재단	서울 도봉구 우이동 100-15 3층 tel 02-990-6365 / fax 02-990-5622
PARAMITA청소년협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38-3 tel 02-723-6165 / fax 02-723-6167
한국GIRL SCOUTS연맹	서울 종로구 안국동 163 tel 02-733-6801 / fax 02-738-3013 gskorea@nownuri.net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608호 tel 02-763-8776 / fax 02-744-2748 KSCF@chollian.net
한국 LABO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3-7 세종빌딩 403호 tel 02-817-4625 / fax 02-813-7047 klabo@chollian.net
한국ROTARY청소년 INTERACT	서울 종로구 당주동 5 로얄빌딩 930호 tel 02-730-2511 / fax 02-730-2515
한국BOY SCOUTS연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3 tel 02-780-1991 / fax 02-784-1625 s5scout@unitel.co.kr
한국복지재단	서울 중구 무교동 95 동민빌딩 11층 tel 02-777-9121 / fax 02-756-4256 KWFO2@hitel.net
한국불교청년회	서울 성북구 성북동 292-1 중앙불교회관 내 tel 02-747-5787 / fax 02-745-6364
한국BBS중앙연맹	서울 성동구 홍익동 274-6 덕수빌딩 3층 tel 02-291-2334 / fax 02-291-2339 kbbsf@hitel.net

단체명	주 소(전화/팩스/E-MAIL)
한국4-H후원회	서울 강동구 명일동 48-1 한국4-H회관 내 tel 02-428-0451 / fax 02-428-0455 korea4h@unitel.co.kr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서울 강남구 청담동 41 청담빌딩 10층 tel 02-549-6370 / fax 02-549-6455 yaknct@nuri.net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 중구 소공동 112-34 tel 02-754-7891 / fax 02-774-8889 zymca1@chollian.net
한국YOUTH HOSTEL연맹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 408호 tel 02-725-3031 / fax 02-725-3113 kyha67@chollian.net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3-7 세종빌딩 302호 tel 02-825-8301 / fax 02-825-8302
한국청소년선도회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12-6 tel 02-216-2472 / fax 02-216-2475
한국청소년연맹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6 보라매공원내 tel 02-841-9291 / fax 02-845-8138 now1696819@nownuri.net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3-7 세종빌딩 303호 tel 02-817-6323 / fax 02-817-6326 kyla@nownuri.net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서울 관악구 봉천6동 1687-22 tel 02-886-8522 / fax 02-886-8521 seakorea@unitel.co.kr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3-7 세종빌딩 301호 tel 02-812-8366 / fax 02-812-8367
홍사단	서울 종로구 동숭동 1-28 tel 02-743-2511, 4 / fax 02-743-2515 yka80@chollian.net
21세기 공동체개발원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393 수영요트경기장 본관 314호 tel 051-746-6799 / fax 051-743-6779
광주효성청소년문화재단	광주 동구 금남로 1가1 전일빌딩 205호 tel 062-222-1677 / fax 062-222-1655
국제청소년진흥협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65-339 tel 02-395-6555 / fax 02-313-1456

단체명	주 소(전화/팩스/E-MAIL)
대한기독교청소년수련원	전남 나주시 다도면 반송리 278 tel 0613-37-7004 / fax 062-527-2506
무등청소년회	광주 북구 임동 620 무등경기장내 130호 tel 062-528-5900 / fax 062-528-5908
삼동청소년회	전북 익산시 창인1동 45-1 tel 0653-842-9729 / fax 0653-842-1728
성산청소년육성재단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4-6 tel 032-438-4293 / fax 032-421-4783
애린복지회	경기 안산시 이동 551-4 tel 0345-417-8788 / fax 0345-501-1611
인천천주교청소년회	인천 중구 답동3 천주교회관내 tel 032-765-6964 / fax 032-765-6986
천운청소년육성회	서울 종로구 종로3가 9 삼영빌딩 503호 tel 02-766-7236 / fax 02-743-2490
청록청소년육영회	서울 송파구 장지동 84-1 tel 02-401-1023 / fax 02-408-102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66-2 동관빌딩 tel 02-585-0098 / fax 02-585-0038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	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257 tel 0652-222-7754 / fax 0652-221-3014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서울 마포구 공덕2동 249-12 영명빌딩 tel 02-703-7048 / fax 02-817-6325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119-15 유성빌딩 tel 02-924-3377 / fax 02-928-5366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	서울 중구 남산동 3가 19-2 수남빌딩4층 tel 02-757-0090 / fax 02-757-0094
한국청소년심신육성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4-7 tel 0652-84-9600 / fax 0652-84-9601
한국청소년행동과학문화원	서울 동작구 사당3동 708-395 tel 02-3476-0042 / fax 02-3476-0043
한사랑청소년광장	서울 서초구 반포동 53-3 동호빌딩 tel 02-596-1221 / fax 02-599-5350
화랑수련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하리 25 tel 053-851-9111 / fax 053-851-9114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96 tel 02-734-0701 / fax 02-734-0704 youth@youth.re.kr

단체명	주 소(전화/팩스/E-MAIL)
한국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협회	서울 서초구 잠원동 34-20 ICM빌딩 2층 tel 02-548-4634 / fax 02-548-4635 k6001@hitel.net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0-8 tel 02-423-0043 / fax 02-3432-9955 fry@chollian.net
한국청소년학회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3-41 구미빌딩 tel 02-522-8111 / fax 02-522-8110 zpiyout5@chollian.net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편, 1998 *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 참조.

5. 청소년학과 찾아가기

학교 학과명	전 화 팩 스	주 소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02-300-1509 02-375-9934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02-300-1513 02-375-9934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전공	02-300-1509 02-375-9934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02-820-5157 02-815-4467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청소년학과	02-820-5030 02-824-3829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0331-249-9336 0331-254-9695	수원 팔달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전공	0331-249-9032 0331-47-8967	

학교 학과명	전 화 팩 스	주 소
경산대학교 인간복지학부 청소년지도학과	053-810-9634 053-814-3029	경북 경산시 점촌동 산 75
순천향대학교 교육과학부 청소년지도학과	0418-530-1146 0418-530-1140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산53-1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복지학과	02-325-7456 02-325-7459	서울 종로구 혜화동 90-1
한국체육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02-410-6787 02-418-1877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15
호서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0418-40-5129 0418-40-5025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산29-1
천안대학교 청소년학과	0417-550-9195 0417-550-9122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85-1
한서대학교 청소년학과	0455-60-1047 0455-60-1119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
주성대학 청소년문화학과	0431-210-8290 0431-210-8159	충북 청원군 북일면 덕암리 산4
원광보건전문대 청소년지도학과	0653-840-1419 0653-840-1566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6. 청소년개발원 정보 이용하기

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1989년 이래 청소년관련 조사 연구, 정책개발 연구,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을 실시하였다. 위치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빌딩 9층~10층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자료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서비스와 함께 청소년 단체 및 시설의 정보화를 지원하여 왔다. 청소년연구나 지도시 정보가 필요할 때 일단 청소년개발원의 자료실, 통신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줄여줄 것이다.

1) 연구팀의 지원

각 연구진들은 청소년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화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나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나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담당 연구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은 자료실(02-578-7924)로 전화나 방문을 하여 자료 확인을 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료실 이용

자료실은 9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절기는(3월~10월)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11월~2월) 오후 5시까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는 개가식이며 소장 자료는 DB로 관리하면서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료 이용은 복사가 가능하며 복사비는 자비 부담이다. 청소년개발원에서 발간한 자료로는 연구보고서, 수련거리, 연수교재, 기타 세미나 자료 등이 있다. 자료는 교보문고 등 전국 주요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3) 통신 정보서비스

통신서비스는 PC통신과 인터넷 서비스가 있다.

PC통신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망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정보마을’은 1995년 12월 천리안과 나우누리에 처음 개설되었다. 현재는 천리안(youth), 하이텔(y-net), 유니텔(youthnet)을 통해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정보마을’은 단독 서비스라기보다는 주요 정보를 보유한 청소년단체간의 협력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었다.

정보내용은 청소년용과 청소년연구자/지도자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용으로는 문화정보, 상담정보, 진학정보, 직업정보, 여행정보 등이 있다. 연구자/지도자용으로는 청소년개발원 자료, 논문 등 연구자료, 수련활동 자료, 법령 자료, 해외청소년 자료 등이 있다. 이외에 청소년단체, 수련시설 등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그림 12〉 청소년정보마을 화면(유니텔)



〈그림 13〉 인터넷 서비스 youthnet 화면



인터넷 서비스인 youthnet은 1996년도 초고속정보통신망 공공응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이라는 명칭으로 개발되었다. 현재는 청소년 단체 및 시설의 인터넷 서비스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중이다. 그리고 청소년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청소년기관을 위한 웹호스팅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정보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청소년소식지,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단체, 시설, 프로그램 정보), 국내외 관련 사이트, 전자도서관(구축중) 등이 있다.

1998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연구보고서 ◇

정 책 연 구

- 98-01 천정웅·김정주·김영지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체계 연구」
- 98-02 김정주·천정웅·김영지 「지역청소년센터 운영모델 연구」
- 98-04 노 혁·길은배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성화 방안 연구」
- 98-05 이민희·이명숙·정화옥·이춘화 「청소년폭력 대책 모델 개발」
- 98-06 이민희·이명숙·정화옥·이춘화 「가출청소년 쉼터 모델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98-07 고성혜·맹영임·신선미 「특성화된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98-08 전명기·김영한·박창남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방안 연구」
- 98-09 황진구·임지수 「청소년 정보 분류·검색체계 개발 연구」
- 98-13 김정배·정화수·서수자 「청소년 자원봉사 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 98-14 윤철경·박영균·정화수·서수자 「중·고등학교 봉사활동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해 외 청소년정책 동향

- 98-16 정화옥 「세계 청소년장관회의 자료집」
- 98-17 이종원 「일본 청소년 이시메의 실태와 대책」
- 98-18 이종원 「일본 청소년육성의 현실과 대응방안」
- 98-19 이수봉 「중국의 청소년 조직과 활동」

청소년정보자료

- 98-10 김혁진 「청소년정보 길라잡이」
- 98-11 황진구 「인터넷에서 청소년 정보 찾기」
- 98-12 이해연 「청소년문제 어디서 어떻게 지도하나」

프로그램 개발

- 98-15 김정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모음집」
- 98-21 고성혜·맹영임 「자연권 청소년 수련거리백과」(CD-Rom 별도)
- 98-03 천정웅·김정주·김영지 「청소년정책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4회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보고서)